

민화 속 문자도: 문자 그대로의 멋

경기 북부 최대 공립미술관인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은 현재 112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2점의 소장품 중 78점이 민화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화 소장품은 고양문화재단 초대 감독이셨던

이상만 감독님의 기증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민화 중 7점의 문자도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민화의 사전적 의미는 민간 전설이나

민속, 서민 생활을 소재로 한 그림입니다.

화조도, 십장생도, 문자도, 책가도 등이

민화의 대표 화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문자도는 한자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글자에 그 내용의 그림을 접목한 것입니다.

문자도는 3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복을 기원하는 길상 문자도,

유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유교 문자도,

부적 등과 같은 기원 문자도입니다.

저희 소장품은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로

대표되는 유교 문자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8개의 문자 중 아람미술관 소장품은 5개의 글자

7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약이나 믿음의 상징인 ‘신信’,

형제의 우애를 뜻하는 ‘제悌’,

도원결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義’,

청렴과 절제의 상징 ‘염廉’,

정절과 고고함을 상징하는 ‘치恥’ 입니다.

글자에 담긴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글자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마음 속에 간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전시는 고양문화재단 이상만 초대감독님의 기증 작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문자도란?

민화 중에서 문자도는 한자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글자에 그 내용의 그림을 결합한 글자그림입니다.

문자도는 한자에 대한 주술적인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를들어 복(福)자를 그린 문자도는 행복을 가져다 주고,

수(壽)자를 그린 문자도는 오래 살게 하며,

녹(祿)자를 그린 문자도는 출세길을 연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효(孝)자를 그린 문자도는 효심을 불러 일으키고,

충(忠)자를 그린 문자도는 충성심을 높이게 합니다.

문자도는 이렇듯 행복 출세 장수를 기원하는

길상문자도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다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사회에 퍼지며,

효제충신예의염치의 유교적 덕목을 담은

유교문자도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소장품도 바로 유교문자도 중

신자도, 제자도, 의자도, 염자도, 치자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정병모,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2011

정병모,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돌베개, 2012

김병연, 조선 후기 제주도 문자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2012

김희정, 민화문자도의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작품안내



1 제자도

형제간의 우애와 정을 형상화하며,

사이가 정답다고 하는 할미새와 산앵두나무가 소재로

많이 묘사된다.

왼편에 그려진 두마리의 새가 할미새를 표현한 것이다.

2 신자도

신은 믿음 언약의 상징으로,

주로 입에 편지를 물고있는 두 마리의 새를 그린다.

얼굴은 사람이며 몸체는 새의 모습이라는 상상의 새 창조이다.

3 의자도

의자도는 도원결의를 상징하는 그림이다.

꽃무늬 장식과 책가도가 함께 그려져있다.

4 신자도

앞에 있는 신자도와 마찬가지로 서신을 입에 물고있는

두 마리의 새가 그려져 있다.

고사에 의하면 7월 7일 홀연히 과랑새가 한무제의 궁전에

날아들었는데 동방삭이

‘이는 요지의서왕모가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했다. 즉 창조가 물고 있는 서신은 서왕모가 온다는

굳은 언약과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의자도

도원결의를 소재로하여 복숭아 꽃만 그려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의자도는 글자를 간략화하여

윗 부분을 한쌍의 새로 표현하였다.

6 염자도

염이란 청렴하고 검약한 것을 뜻하며,

염자도에는 게 혹은 봉황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집을 짓지 않고,

끓어 죽을지언정 조 따위는 먹지 않고 대 열매만 먹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상의 동물 봉황이

염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등장한다.

7 치자도

정절과 고고함을 상징한다. 치는 백이, 숙제의 고사를 담았다.

백이, 숙제는 은의 제후 고죽군의 큰아들과 셋째아들이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둘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수양산에 들어갔는데 주의 무왕의 통치가 옳지 않다고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고사리를 캐먹고 살다가

죽었다는 일화이다.

이 문자도에는 토끼가 있는 월상과 수양산에 들어가 있는

백이, 숙제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참고문헌]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2012

정병모,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2011

정병모,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돌베개, 2012

권미경, 전통 민화 문자도의 현대적 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14

김병연, 조선 후기 제주도 문자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희정, 민화문자도의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전시 기간 2024. 2. 1. ~ 3. 17.

입장료 무료

장소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상설전시장 1

주최 고양문화재단

총괄: 유희경

전시총괄 : 이문희

전시: 김유미, 정채경, 박유진, 이주희, 이명지

전시홍보: 강지인

*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미술관이 되고자 종이 리플렛 대신 웹리플렛으로 제작하였습니다.